

# 혁신도시 기관들, 정부 '혁신가이드라인' 대응 분주

##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b>가능</b> · 민간·지자체 경합 기능 → 축소 ·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기능 → 축소 ·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	<b>조직·인력</b> · 12월 말까지 기능조정예 따른 인력 감축 · 정·현원차 최소화 · 상위직 축소 · 구성원 적은 단위조직 대부서화
<b>예산</b> · 기관별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예산 10% 이상 절감 23년: 경상경비 전년 대비 3% 이상, 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 · 보수체계 → 직무·성과 중심 개편	<b>자산</b> · 기관 고유의 기능과 연관성 낮은 토지·건물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 핵심 업무 무관, 부실한 출자회사·과도한 청사, 사무실 정비 · 기관장 사무실 정부 부처 차관급 규모(99㎡) 이하, 상임감사·상임이사 등 임원진 사무실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축소
<b>복리후생</b> · 개별 공공기관 복리후생 운영현황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통해 자율점검. 점검 결과 알리오에 공시, 경영평가 등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 농어촌공사, 혁신 TF 조직... '자금거래 자동알림' 운영 투명성 강화 전력거래소, 워크숍... 사학연금 '공적연금 개혁' 대비 직제 개편 등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지난달 말 마련하면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들도 전담조직(태스크포스)을 만들어 혁신계획 수립에 나섰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포함한 전국 350개 공공기관은 이날 말까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혁신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날 첫 전담조직(공사 혁신 TF) 회의를 열고 혁신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은 부서별 기능을 고려해 4개 반장(기획관리실장·미래전략실장·자산재무처장·총무인사처장)을 포함 17명으로 구성했다.

농어촌공사는 앞서 나주 본사에서 이병호 사장이 직접 '정령·안건·혁신' 실행방안을 발표하

고 제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사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혁신'을 지향점으로, '경영, 업무, 조직, 인적, 공공' 5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실행과제로 정했다.

우선 지속경영을 위해 민간기업을 포용·지원하는 '제2기 ESG경영'을 추진하고, '규제혁신 추진단'을 운영한다.

내부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워커', 'KRC워커' 등 업무방식을 도입하고, 공사 기술력에 대한 민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아카이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외 자금거래 자동알림시스템을 운영하며 재무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기구 준법경영시스템인 'ISO 37301'을 도입해 경영관리의 공신력을 높인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1일 나주 본사 교육원에

서 '공공기관의 역할 및 혁신방향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경영진과 핵심 간부 40여 명이 참석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영혁신·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홍길표 백석대학교 교수가 강단에 서서 공공기관 혁신방향 대응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강의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도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경영전략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개편된 직제를 이달부터 추진한다.

이번 직제 개편에서는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를 통합하고 기능 중심 부서 편제를 단행한 것이 특징이다.

공단 사상 최초로 실장이 소속된 전보인사 권한을 부여받아 실 단위 팀 전보인사를 배치한다.

또 정부 국정과제인 공적연금 개혁 추진에 대비해 연금사업본부에 연금기획실을 신설했다. 사학연금의 핵심사업 수행부서인 연금사업실은 기능별 업무처리 중심에서 임용부터 퇴직 및 연금수급에 이르는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춰

재직자관리팀, 퇴직자관리팀, 연금수급자팀에서 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편했다.

이외 노사협력팀(인재경영실 내)과 자금관리팀(자금운용관리단 투자전략실 내), 국내증권팀(증권운용실 내) 등을 신설했다.

한편 혁신가이드라인은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고 있다. 인위적 구조조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내년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들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삭감된다.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해외 사업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비핵심 자산은 매각된다.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는 성과급에도 연계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혁신가이드라인의 5대 추진방향 가운데 '자산 정비' 부문에서는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이주직원용 숙소·사택 일부를 매각하거나, 이전기관의 업무시설 등 유휴공간을 지역 중소기업 등 민간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전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전력거래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포함한 지역 공공기관 7곳은 최근 여성 청소년 50명에 전달 위생용품 꾸러미를 나누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에 전달했다. <인터넷진흥원 제공>

## 전남도, 주력산업 견인 혁신 선도기업 발굴

8월 30일까지 모집

최대 6년간 20억 등 지원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오는 30일까지 '제2차 전남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모집해 지역 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우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집중 지원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개별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가치사슬에서 역할이 큰 유망기업과 전후방 기업이 협업해 새로운 성장 모형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해 중점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제1차 모집에서 지역혁신 선도기업 4개사를 선정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3개사를 발굴해 올해 총 7개사를 지원할 계획이

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사와 주사업장이 전남 도내 위치 ▲저탄소·지능형 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등 도내 주력산업 업종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지역 스타기업 평균(111억 원) 이상,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류심사, 현장·발표평가 등을 거쳐 확정한다. 선정되면 1차년도에는 전담 사업관리자(PM)를 통한 협업전략 컨설팅, 연구개발(R&D) 과제기획 등에 5000만원을 지원한다. 정책 자금 한도 확대, 보증료율 감면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초기 지원서비스도 한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자금 최대 6년간(3+3년) 20억원 지원을 비롯해 판로·인력·투자 등 개별 협업과제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사학연금, 국내 PEF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 모집

4000억원 규모...4곳 선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총 4000억원 규모 펀드를 운용할 '국내 PEF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 4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운용사별로 1000억원 이내 금액을 약정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PEF)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업무집행사원이자, 결성 규모는 5000억 원 이상으로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출자 확보받은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오는 23일까지 운용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1차 정량평가와 위탁운용사 현장실사, 2차 정성평가(PT)를 진행한다.

오는 9월 말에 4개사를 최종 선정한다.

사학연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가방법에 ESG 추진 활동의 적정성(ESG 정책, 투자 프로세스 등)을 도입해 가점에 반영할 방침이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2020년 이후 코로나 19 지속에 따른 자산가격의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중장기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한 지속적인 대체투자자산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역량 있는 위탁운용사 선정을 통해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ESG 연계 투자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사학연금 홈페이지(tp.or.kr) 공지사항 또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국에너지공대, 11일 온라인 모의면접

창의성 문항 활용 25분간 진행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이 두 번째 신입생을 받을 준비를 한다. 에너지공대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오는 11일 온라인 모의 면접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의 면접에서는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참여자를 무작위 선정하며 2022학년도 창의성 면접 문항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25분간

진행된다.

모의 면접은 3일까지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면접 대상자는 개별 통보한다. 모의 면접 신청자 전원에게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입학센터가 제작한 '창의성 면접 패키지 2종'을 발송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2022학년도 창의성 면접 문항과 2021년 창의성 면접 안내 등이 담겼다.

입학센터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달 18일과 9월 1일 2회에 걸쳐 온라인 입시설명회를 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